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03/21 → 06/01/2025

AYOUNG KIM

김아영



플롯 블롭 플롭

PLOT BLOP PLOP

ATELIER
HERMÈS

EXHIBITION

플롯: 역사를 새롭게 사유하는 정교한 방법론

안소연 / 아티스틱 디렉터

김아영의 작품 세계는 동시대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세계의 기원에서부터 다가올 미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공간 속에서 추적하고 상상하는데 있다. 경계와 세계를 넘나드는 공간 운동을 비롯해 혼성과 합성을 통해 구축한 거대 담론들은 허구의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현실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에 있다. 그의 작업은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역사와 현실의 불가항력으로부터 가능성의 길을 찾아 나서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인 것이다. 근대성 신화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통찰과 인류세가 중요한 담론 주제가 된 현재 시점에서의 지질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적 사유는 작가가 펼치는 창발적인 미래주의에 일련의 개연성을 더하고 공감의 근거를 마련한다.

주어진 역사를 새롭게 사유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덧대는 방식의 사변적 서사는 작가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작업 방식인데 그 기반에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마다하지 않는 전방위적인 리서치가 선행된다. 역사와 과학, 신화와 지정학,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아카이브 자료로 축적한다. 반면, 광범위한 역사의 시공간에서 작은 흔적들에 불과한 이 단서들 사이에는 무수한 공허와 빈틈이 존재하며 이것이 작가의 영역으로 주어진다. 그는 거기에 서로 다른 시공간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어 붙여 매끈하지 않은 부정합과 비선형적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교차와 직조, 때로는 의도적인 파열을 통해 입체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를 쌓는다. 역사에 기입되지 않은 미시사를 보충하고 상상의 공간을 더하는 일은 대문자 “H”로 대표되는 역사 이면의 이름없는 다수를 상상하는 일이며 존재하지 않는 길들을 내는 것이다. 김아영은 이 작업을 ‘플롯’이라고도 부른다.

전시 “플롯, 블롭, 플롭”에서 작가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온 주제를 재탐사해서 시각적, 공간적 레이어를 더해 밀도 높으면서도 확장된 세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음성적으로 입안에서 터지는 방울들의 소리를 연쇄적으로 흥내내는 듯 유희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들이지만 실제로는 작가가 운율에 맞춰 주의 깊게 선택한 것들로서 ‘구획, 방울, 풍당’이란 의미를 내포하며 상호 조응한다. 김아영은 플롯 본연의 역할, 즉 사건들의 사슬을 구조적으로 조직하여 서사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역사적으로 플롯의 중의적인 쓰임새, 즉 영토, 경제, 지리와 관련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도면을 그리며 동선과 시노그래피를 계획하는 일, 더 나아가 음모나 작전을 획책한다는 다중적 의미에 주목한다. 그 기획을 가지고 작가는 액체(석유)와 관련한 서사에 다시 발을 들이며 이전과는 다른 다중적인 세계를 시연하고자 한다.

석유는 김아영의 몇몇 이전 작품들에서도 줄곧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해 왔다. 그것이 근대주의를 가능하게 한 권력이고 물리적인 이동과 속도의 에너지원이자 지정학적 분쟁 요소, 지질과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아영 작품세계

TO PLOT: AN INTRICATE METHODOLOGY FOR RETHINKING HISTORY

SOYEON AHN / ARTISTIC DIRECTOR

Ayoung Kim's artistic practice traces and imagines the cause and effect of contemporary events across a wide range of space and time, from the origins of the world to the future to come. Her works embody the spatial movements across boundaries and worlds, as well as the large-scale discourses built through hybridization and synthesis, which relentlessly march toward a fictional world. Yet, their starting point has always been an acute questioning of reality. Her practice parallels a virtual simulation that seeks potential paths amid the force majeure of history and reality that appears to be a dead end. Reflection on ge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t a time when insight into the dark side of modernity's myths and the Anthropocene has become a central discourse adds relevance and grounds for empathy to the artist's emerging futurism.

Kim is dedicated to a methodology of speculative fiction writing that rethinks a given piece of history and supplements it with original stories, which presupposes extensive research, often in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s of various disciplines. Kim accumulates as much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possible from archival materials from areas of history to science, mythology, geopolitics, and technology. However, there lie a myriad of voids and gaps between these clues, which are mere traces in the vast space and time of history. These are what the artist has to work with. This is where Kim constructs a nonlinear narrative and turbulent inconsistencies by stitching together images and texts from different temporalities and times, then layers multidimensional and polyphonic voices through intersections and weaving, and at times, intentional ruptures. Supplementing untapped micro-histories and adding imagined spatiality are part of an undertaking to envision the nameless majority behind History and blaze an unprecedented trail. Kim refers to this very operation as “plotting.”

This exhibition—*Plot, Blop, Plop*—presents a dense yet expanded world with visual and spatial layers based on the re-exploration of the themes that Kim has consistently reflected upon. Phonetically, the title is a combination of words that playfully mimic the sound of a series of bubbles popping in the mouth. Yet, in fact, each word was carefully chosen by the artist to rhyme and to imply its respective meaning—*Plot* for a plot, *Blop* for blop and *Plop* for the sound of a blop dropping—which in turn semantically correspond with one another. The artist recognizes secondary definitions of the plot among its historically multiple connotations—

전체와 연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4-2015년에 걸쳐 3부 연작으로 제작했던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쉘(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에서는 석유의 기원과 신화, 석유의 자본화와 신식민주의 등 20세기의 역사를 석유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바 있다. 이 연작을 계기로 작가의 시야는 역사의 단편적인 사건 중심에서부터 문명사적인 흐름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탄화수소 화합물인 석유는 ‘돌(라틴어 *petra*)에서 나는 기름(*oleum*)’으로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던 죽은 유기물의 퇴적물이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죽음을 부르는 탐욕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역청에서부터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파라오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던 재료처럼 석유의 신화와 기원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한다. 빛을 밝히는 고래기름의 대체품이었다가 본격적으로 고효율의 연료가 된 20세기 이후에는 해방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야기된 각종 전쟁의 이면에서 이권을 둘러싼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적 독립과 자원의 주권을 뺏기는 신식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산유국들을 둘러싼 끝없는 탐욕과 분쟁, 그리고 석유화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대 경제의 명암은 풍요이며 동시에 재앙인 석유 자원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제페트” 연작에서 김아영은 전지구적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던 1970년대의 석유 파동과 분쟁 등 산유국들의 사건들을 한 축에 두고 같은 시기 1970-1980년대 한국 근대화를 견인했던 건설업체들의 중동 진출사를 서로 교차하면서 전혀 다르게 전개된 양측의 근대화 과정을 비교한다. 이때 역사는 작가가 응시한 수많은 미시사들로 채색되며 확장된다. 1930년대 세계 천연진주의 최대 산지였던 걸프만이 석유시추로 인해 한순간에 오염되고 진주 채집이 사라진 일, 진주를 입에 물고 호객하던 잠수부와의 일화를 전한 쿠웨이트 주재 영국인 아내의 회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탐사의 헛된 꿈을 꾸던 한국 정부,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연도별 원유 가격 그래프, 홍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회로 먹은 후 이형흡충(*heterophyiasis*)에 감염된 한국인, 우연히 그의 택시에 탔던 작가가 그를 인터뷰 하기위해 방문했던 23층 아파트의 우거진 베란다-공중정원... 작가는 자신이 채집한 신화와 역사적 기록, 개인들의 경험담 등 방대한 단서들을 교직하여 공중에 떠도는 목소리의 형태로 남기는 시도를 한다. 이때 언어는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램 ‘기계장치의 신(*Deus ex Machina*)’에 의해 분절되어 더 큰 혼돈의 국면에 처한다.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쉘” 연작은 그렇게 성우와 코러스가 완성한 내러티브 사운드/소닉 픽션/다성 음악극으로 상연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안하는 신작 “알 마터 플롯 1991(*Al-Mather Plot 1991*)”(2025)은 공중에 음성으로 떠다녔던 “제페트” 연작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된다. 사변적 상상력으로 가득 찬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자 하는 작가의 열망과 때로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역사를 곱씹어보고자 하는 작가의 사색은 진자의 추처럼 왕복 운동을 하며 김아영 작업세계의 넓이와 깊이를 확보한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동시대의 지정학적 위기는 석유자본을 둘러싼 분쟁의 역사 속으로

the primary one being the composition of a narrative by structuring a chain of events: outlining the space in terms of territory, economy, and geography, and designing flow and scenography by drawing a floorplan. From this approach, Kim re-enters the narrative of liquid (petroleum) to present disparate, multiple worlds.

Oil has been an important motif in several of Kim’s previous works. Petroleum, as the engine of modernism, the energy source for physical transportation of significant speed, and a factor in geopolitical conflicts and changes in geological scale and even climate, is undoubtedly central to the entire body of Kim’s works. In particular, in *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 (a three-part series from 2014-2015), Kim reconstructed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oil, including its origins and mythology, its capitalization, and its neocolonial dimensions. With this series, the artist’s horizons have expanded from focusing on episodic events to civilizational currents.

Petroleum, a hydrocarbon compound, is “oil (oleum) from stone (petra),” a coveted commodity derived from deposits of dead organic matter buried in the ground for years, rising to the surface only to reintroduce death to the world. From the bitumen used in Noah’s Ark in the book of *Genesis* to the embalming material applied to the bodies of dead pharaohs in ancient Egypt, the mythology and origins of oil are intertwined with human history. Since the 20th century, when it was first used as a substitute for whale oil to provide light and then as a highly efficient fuel, it has been subject to struggles over interests behind numerous wars fought in the name of liberation. Political independence and neocolonialism that seize resource sovereignt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incessant greed and conflicts surrounding oil-producing countries alongside the modern economies that are inevitably dependent on petrochemicals reflect the ambivalence of petroleum resources—an abundance and a disaster.

In the *Zepheth* series, Kim compares two completely different courses of modernization by pairing major events from oil-producing countries, such as the oil shock and the following global energy crisis from the 1970s, with the construction companies’ expansion into the Middle East in the 1970s and 1980s, which led to the modernization of South Korea. In doing so, history is colored and expanded by numerous micro-histories that the artist has set eyes on: sudden pollution and the extinction of pearl harvesting in the Gulf, which had been the largest producer of natural pearls, due to oil drilling; a memoir by the wife of a British expatriate in Kuwait recounting an anecdote about a diver who hawked pearls with his mou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vain dreams of oil exploration off the coast of Pohang; a yearly chart of crude

작가를 다시 끌어들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작은 “제페트” 연작의 광범위한 시공간과 내러티브를 작품의 배경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알 마터 주택단지’라는 특정 장소를 무대로 현재 시점과 걸프전쟁이 있었던 1991년을 플래시백으로 왕복한다. 이 장소가 시대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파동은 중화학공업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 한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1970-1980년대의 건설사들의 중동진출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당시 수많은 가장들처럼 작가가 어린 시절 중동에 파견되었던 작가의 아버지는 중동 여러 도시의 인프라 시설 건설에 참여했는데, 그가 몸담았던 회사가 만든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아파트 단지였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한양 아파트’라 불리던 이 장소는 입주도 하기 전에 석유와 걸프만 확보를 노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0년)으로 난민들의 임시 거주지가 되고 만다. 오랫동안 ‘쿠웨이트인 아파트(Kuwaiti Compound)’라 불린 이유이다. 이 국지전은 석유 자원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참전한 걸프 전(1990-91년)으로 확대되고 ‘사막의 폭풍작전’이라 불린 최전방의 전투는 CNN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전세계가 가정에서 전쟁 극장을 관람했다. 전쟁이 실체가 아니라 비디오 게임이었다는 음모론이 퍼졌던 이유다.

한 장소는 꿈과 기억들로 구성된다. 그곳은 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던 작가 아버지의 동료들의 기억은 물론, 이국의 소식과 작은 선물에 기뻐하던 어린 시절 작가의 꿈이 서려 있다. 살만 벤 압둘아지즈(Salman Ben Abdulaziz) 국왕이 신에 뜻을 따라 난민 1000가구를 수용했던 사실을 전한 방송 클립과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의 전쟁을 앞두고 밝힌 소회, 전쟁 확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후세인의 비밀스런 음성이 위급했던 당시 상황을 기록한다. 이에 더해 동남풍과 전망이 좋아 알 마터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현지 주민의 인터뷰는 과거를 망각한 듯 평화로운 현재를 조망한다. 전쟁의 악몽과 다국적 주상복합으로서 고급 주거지의 쾌적함이 교차하는 미지의 장소를 우리는 아파트의 도면과 3D로 구현된 내부 공간, 이와 어울리지 않는 걸프전의 작전지도와 기억을 소환하는 조명의 깜빡임에 힘입어 상상 여행하게 된다.

전쟁의 악몽과 일상의 삶이 교차하는 다국적 주상복합 주거지는 전시공간에 시각적으로 구현되어 그 미지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전시장의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바닥에 분절된 선으로 표시된 것은 알 마터 아파트의 도면인데, 이는 라스 폰 트리에(Lars Von Trier)감독의 영화 “도그빌(Dogville)”(2003)의 파격적인 미장센 보다 훨씬 더 약화된 형태를 띤다. 관객들은 벽도 문도 없이 내외부가 개방된 아파트의 공간에 들어서게 되고 영상에서 3D로 구현된 건물의 구석구석을 시선으로 따라가며 한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역사적인 공간에 실제로 있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을 하게 된다. 반면 관객의 동선과 시야를 방해하는 하는 것들이 전시 공간에 공존하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투하되는 폭탄들처럼 공중에 매달린 전쟁의 작전 심볼들이다. 격렬한 전쟁에서 화염에 불타고 녹아내린 듯 일그러진 형태로 드러나는 이것들은 평화로워야 할 주거지 위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마치 소음처럼 이 지역의 역사와 사연을

oil prices that dominated the world economy; a South Korean who contracted heterophyiasis after eating raw fish caught in the waters of the Red Sea; and the lush veranda/hanging gardens of a 23rd-floor apartment building, which Kim visited to meet the driver of a taxi that she once rode. Kim brings together a vast amount of clues—the collected myths, historical records, and witnesses’ accounts—to let them cross over one another and to attempt to leave behind a voice that travels the air. Here, the language is fragmented by a computer algorithmic program “Deus ex Machina,” facing a state of greater chaos. Hence, the *Zepheth* Series has come to be presented as a narrative sound/sonic fiction/polyphonic musical play.

Proposed by the artist a decade later, the new work *Al-Mather Plot 1991* (2025) is an attempt to visually materialize the *Zepheth* series that used to be a voice in the air. As Kim oscillates between the aspiration to reach out to the world brimming with speculative imagination and reflection on the history of the reality in which we live, her artistic practice reserves breadth and depth. Kim was drawn to the history of conflicts over oil capital by the concurrent contemporary geopolitical crises. The new work takes the broad time, space, and narrative of the *Zepheth* series as the backdrop, yet it is set in a specific location: Al-Mather Housing Complex in Riyadh, Saudi Arabia. The Complex serves as the background for flash-back laps between today and 1991, the year of the Gulf War, acting as a witness to the times.

The two oil shocks of the 1970s hit South Korea hard, a developing country that relied on heavy chemical industries, while the expansion of construction companies into the Middle East in the 1970s and 1980s paradoxically became a stepping stone for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Like many families at the time, the artist’s father, who was sent to the Middle East when Kim was a child, worked on the construction site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various Middle Eastern cities. Among the projects his company undertook was this apartment complex. Dubbed “Hanyang Apartment” by the local Korean community, it became a temporary residence for refugees displaced by the Iraqi invasion of Kuwait in 1990, an invasion aimed at securing oil and control of the Gulf. And this gave it its previous name “Kuwaiti Compound.” This localized war escalated into the Gulf War (1990-91), in which the United States took part in defending its oil resources, and the frontline battles, dubbed “Operation Desert Storm,” were broadcast live on CNN, allowing the world to witness the conflict from their homes—hence the circulation of conspiracy theories that the war was not real but a video game.

A place is made up of dreams and memories. The work includes broadcast clips of King Salman Ben Abdulaziz announcing the acceptance of 1,000 refugee

전하는 작품 “제페트”의 사운드/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때때로 깜박거리는 조명은 현재로부터 1991년의 시공간으로 플래시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작가는 분절된 이야기들을 이어 붙이고 구조화하는 스토리텔링에서의 플롯만이 아니라 공간을 구획하고 도면을 그리며 동선과 시노그래피를 제시하는 공간적인 장치로 플롯의 다중적인 의미와 기능을 실험하며 작업을 확장한다.

기억과 기록의 편린들은 더 이상 흘러진 채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와 가상의 형상으로 구현된다. 그것은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발전한 광학 테크놀로지와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실험하는 작가의 작업 방식에 노력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작가는 실사촬영(live-action shooting)에 더해 생성형 AI V2V 영상변환(Video-to-Video 변환), 라이다 스캔(LiDAR scanning), 3D 가우시안 스플래팅(3D Gaussian splatting), 게임 엔진 애니메이션, 2D 아카이브 애니메이션 등, 탈광학적 이미지를 과감히 혼합하고 충돌시켜 트랜스미디어의 실험을 추진한다. 사실과 허구가 정교하게 교차하여 우리의 인지를 향상하고 사변적 허구를 실제처럼 실현하기 위해서 작가는 새로운 기술과의 만남과 길들임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families by God’s will, a soldier’s pre-war reflections on the Gulf War, and a secret voice recording from Saddam Hussein, who did not expect the war to escalate. In addition, an interview with a local resident who chose the Al-Mather Housing Complex because of its south-easterly breezes and views provides a glimpse into a peaceful present that seems to have forgotten the past.

Guided by apartment floor plans, 3D-rendered interior spaces, and the flickering of lights that incongruously evoke operational maps and memories of the Gulf War, the viewer journeys to an enigmatic place where the nightmares of war intersect with the comforts of a luxurious international mixed-use complex.

The multinational residential complex, where the nightmare of war and everyday life meet, takes place visually in the exhibition space, inviting us to enter its unknown space. The blueprint of Al-Mather Housing Complex shown as segmented lines that run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of the gallery floor, is much more subdued than the unconventional mise-en-scène of Lars Von Trier’s *Dogville* (2003). The viewer enters the apartment, which is open inside and out, with no walls or doors, and explores the space with their eyes on the 3D-rendered nooks and crannies of the building. This experience is immersive as if visiting a historical space they’ve never been before. However, there lie obstacles to the viewer’s movement and vision: operational symbols of war suspended from the ceiling like bombs dropping from the sky. Distorted from the violent war’s fire that melted them, the symbols cast grim shadows over the should-be peaceful residential neighborhoods. While the sound/music of *Zepheeth* unfolds local history and narratives like noise, the occasional flickering lights are an effective device to flashback from the present to the space and time of 1991. The artist expands her work by experimenting with the multiple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plot, not only as a storytelling device that stitches together and structures fragmented narratives but also as a spatial device that compartmentalizes and draws floorplans, suggesting a flow and scenography.

Pieces of memories and records no longer exist scattered but are embodied in real and virtual forms due to the advancements in optical technology over the past decade and the artist’s effort to apply and experiment with them at her command. In addition to live-action filming, the artist ambitiously mixes and collides post-optical images, such as generative AI V2V (Video-to-Video conversion), LiDAR scanning, 3D Gaussian splatting, game engine animation, and 2D archival animation, to undertake transmedia experiments. The artist believes in the significance of encountering and taming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enhance our perception and realize speculative fiction by the intricate intersection of fact and fiction.

역사와 기억으로 마법스프를 끓이다

작가와 의 대화

안소연: 작가는 “다공성 계곡”(2017-2019) 연작을 시작으로 “딜리버리 댄서”(2022-현재) 연작에 이르기까지 최근 작업들에서 ‘사변적 서사(Speculative Fiction)’라고 부르는 상상력으로 가득한 세계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포괄하는 장대한 시간 개념과 여러 차원의 공간을 아우르는 것으로 존재의 가능성 또한 확장된 세계인데요, 반면 이번 전시에서는 역사적인 사료와 현실에 보다 집중한 작품으로 회귀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잠시 시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이유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작은 특히 이전에 공들여 전개했던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쉘(Zephe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2014-2015) 연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두 작품의 상보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아영: 저는 한국의 근대와 세계의 근대가 조응하는 방식에 심취한 상태로 2010년대 초중반을 보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영국에서 학업을 진행하며 갖게 된 관심이었어요. 그 관심의 연장으로 2014년부터 2년 이상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쉘”이라는 연작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된 역청-석유자원과 이를 둘러싼 20세기의 사건들을 응시하며 역청의 역사, 석유자본의 기원, 한국 경제사와 중동 진출, 이를 매개했던 석유파동이라는 전지구적 에너지 위기, 제 아버지가 머물렀던 산유국들의 근대화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교차 일별했던 이 작업은, 당시 사운드 설치, 목소리 퍼포먼스, 음악극 등 청각 이미지를 중심에 둔 3부작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 연작 중 특히 3편이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본전시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를 위해 제작되어 전시와 함께 퍼포먼스로 선보이기도 했어요. 석유자본의 이동과 중동특수(1970-80년대 한국 건설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활발했던 역사)에 관한 조사를 기반으로, 당시 중동에 10년간 파견된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와 저 본인의 미시사, 혼돈의 20세기 세계사(특히 석유발견 이후 중동사)와 한국사를 교차하는 내러티브 사운드/소닉 픽션/음악극의 형식을 띠는 연작이었습니다. 관객은 “제페트” 시리즈를 속삭이고, 외치고, 낭송하고, 합창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청각적 경험, 다성적 경험, 또는 공감각적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20세기의 혼돈을 매개한 마술적 물질인 석유자본을 둘러싼 거시적-미시적, 역사적-개인사적 전방위적 리서치를 진행했으나, 당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서사 속 넓은 시공간을 시각화, 영상화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3부작 모두 오직 내러티브 사운드/소닉 픽션/음악극의 형식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MIXING HISTORY AND MEMORY TO MAKE MAGIC SOUP

AYOUNG KIM IN CONVERSATION WITH SOYEON AHN

Soyeon Ahn: Starting with the *Porosity Valley series* (2017-2019) and continuing with the *Delivery Dancer series* (2022-), your recent works have developed a world full of imagination that you call “speculative fiction”—a world that encompasses multidimensions of space and time, including the past and the future, and thus one that expands the possibilities of existence. However, your new work to be unveiled at Atelier Hermès hints at a shift of your focus to historical materials and reality. What made you feel a brief change of perspective was necessary? Why at this point of time? Also, since this new work is directly related to your previous series of *Zephe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 (2014-2015), I wonder if there’s any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young Kim: I spent the early and mid-2010s fascinated by the ways Korean modernity and global modernity correspond. I gained that interest while studying in the UK in the mid- to late-2000s. It led me to work on the *Zephe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 series for about two years from 2014 to 2015. The project examined 20th-century events connected with bitumen oil which emerged as an energy source in the modern era, exploring the history of bitumen, the origin of petroleum capital, the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and its expansion into the Middle East, the global energy crisis known as the oil shock that mediated the rel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oil-producing countries where my father worked and its intersection with the modernization of Korea. The project resulted in a trilogy centered on auditory images comprised of sound installation, voice performance, and musical theater.

In particular, the third work of the trilogy was produced for the 56th Venice Biennale’s main exhibition “All the World’s Futures” in 2015 and my presentation there included a performance as well. I produced the *Zepheeth* series based on my research into the movement of petroleum capital and the advancement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to the Middle East in the 1970s and 1980s, which I interweaved with the personal histories of myself and my father who was an engineer dispatched to the Middle East. The final works took the form of narrative sound/sonic fiction/musical theater. With various voices whispering, shouting, reciting, and singing in chorus, the works provided the audience with auditory, polyphonic, or synesthetic experiences.

영상으로 작품을 진행하기에는, 로케이션 촬영이나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장면 등, 거대서사 제작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작부터 내러티브/이야기화기의 속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영상이 아닌 사운드와 음악의 매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연작을 반드시 영상, 시각화 버전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그 기회는 늘 뒤로 밀려난 채로 정신 없이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작품을 초기작부터 봐 오신 아뜰리에 에르메스의 안소연 디렉터님께서 개인전을 제안해 주시며, 저의 초기작이 지녔던 풍부한 리서치와, 거시사와 미시사가 직조되며 관객 개개인이 직면한 현실을 반추할 수 있게 하는 성찰성과 반영성 등의 요소가 더 드러나는 새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 주셨습니다. “제페트” 연작의 시각화를 염원하고 있었으나 구현할 기회를 찾지 못하던 저는 이 전시를 통해 십 년에 걸친 오랜 바람을 재개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소연: 작품의 제목인 “플롯, 블롭, 플롭(Plot, Blop, Plop)”은 음성적으로 유희적인 의성어와 의태어들로 구성되는데 그 이면의 중의적인 의미를 공유해 주세요.

김아영: 전시명 “플롯, 블롭, 플롭(Plot, Blop, Plop)”은 일견 단어놀이 같은 것입니다. 플롯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고, 블롭과 플롭은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액체 방울 또는 점성질 덩어리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낙하하며 ‘퐁당’, ‘침방’, ‘철썩’ 등의 소리를 내는 듯한 이미지를 줍니다. 모두 석유와 역청을 둘러싼 플롯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플롯은 사실 꽤 심오한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개 플롯(plot) 하면 시간의 구축, 사건들의 사슬, 이야기를 짓는 단위를 연상하지만 사실 그건 원래 공간에 관한 단어였습니다. 나아가 영토, 정치, 경제, 지리, 경계, 소유권에 관한 용어였어요.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 따르면,

- (a) 작은 부분의 땅,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상용된다.
- (b) 육지의 측정해놓은 지역. 부지(lot).
- 한 건물에 관한 토지 계획; 도표(chart); 그림표(diagram).
- 한 내러티브 내지 드라마에서 행위의 윤곽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들.
-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비밀 계획; 계략(scheme).

중세시대 영국에서 장원의 영주들이 영지를 구획하여 소작농에게 할당하는 영역의 기준이 “플롯”이었고, 이는 부동산 할당, 측량에 쓰이는 단어였어요. 이후 다이어그램, 지도, 기하학적 평면도, 분류도 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플롯’은 ‘실용적 기하학’의 의미로 연극무대 위로 올라와, 극작가가 인물, 사물, 무대장치 등을 포괄한 연극의 모든 요소들을 무대 위에 레이아웃하고, 동선을 만들고, 장면과 장면의 변화를 연출하는

As such I conducted comprehensive research on petroleum capital on macro-micro and historical-individual levels as a magical substance that mediated a chaos of the 20th century. But due to budget constraints at the time, I could not find means with which to visualize the expansive dimensions of space and time I was picturing, so I ended up making works of narrative sound/sonic fiction/musical theater. It seemed almost impossible to realize such a grand narrative into a visual production, considering location shooting and historical verification. So from the beginning, I decided to stick to the storytelling quality and chose the medium of sound and music, instead of video. But I kept my firm will to someday complete the series as a visual production, though that opportunity was unfortunately pushed back for 10 years as I was moving forward with other projects.

Then you, Soyeon, came in, proposing to show at Atelier Hermès a new production that would invite the viewer to reflect on the reality by weaving together macro and micro histories based on rich research, a work with introspective and reflective qualities of my early-career works. Your suggestion helped me return to my 10-year-old wish.

Soyeon Ahn: The work title, *Plot, Blop, Plop*, is comprised of phonetically playful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Please tell us about the ambiguous meaning behind it.

Ayoung Kim: The exhibition title *Plot, Blop, Plop* may sound like a play on words at first glance. “Plot” is a word we are all familiar with, and “blop” and “plop” are taken from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They evoke the image of a liquid drop or a viscous mass, and the sound of it falling, splashing, or sloshing. They all surround the plot surrounding oil and bitumen.

Actually the word “plot” has quite profound meanings. Usually, it is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time, the chain of events, and the unit of storytelling. But in fact, originally it was a word about space. Furthermore, it was a term about territory, politics, economics, geography, borders, and ownership.

According to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plot” means:

- (a) A small piece of ground, generally used for a specific purpose
- (b) A measured area of land; a lot.
- A ground plan, as for a building; a diagram.
- The pattern or sequence of interrelated events in a work of fiction, as a novel or film.
- A secret plan to accomplish a hostile or illegal purpose; a scheme.

In medieval England, “plot” was the standard for allocating the area of land divided by the lords of the man-

등 일종의 ‘동적인 활동의 기하학(dynamic geometry of activity)’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16세기 후반에는 마침내 ‘음모’와 ‘계략’의 의미까지 끌어안게 됩니다. 플롯이 서사물, 연극, 소설 등에 나타나는 사건의 궤어짐을 의미하게 된 것은 약 17세기 중반부터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간 다양한 내러티브와 이야기를 만들어 오며, ‘플롯’이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플롯은 본래 공간을 구획하는 일이었고, 서사의 구조, 나아가 음모 또는 작전을 의미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입니다.

기원전 성경과 길가메쉬 서사시에 기록된 역청과 석유에 관한 기록, 20세기에 이르러 에너지원으로 재발견된 물질 석유, 1973년, 1979년의 석유파동, 그리고 한국의 건설인력 중동 이주, 1980년대 한국 기업이 건설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마터 아파트 단지, 1990년, 공교롭게 발발한 걸프전쟁,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이라는 작전명과 함께, 최초로 라이브 방송된, 일종의 작전 극장(Theater of Operations)의 시대를 연 걸프전쟁. 1990년 걸프전을 피해 알-마터 아파트 단지로 쏟아져 온 쿠웨이트 피난민들과, 한양건설이 시공한 그 아파트를 둘러싼 기억. 아파트의 평면도와 걸프전의 작전 지도가 제각기 펼쳐집니다. 여러 기억과 시공이 교차되는 이 프로젝트는, 플롯의 중층적 개념 그 자체에 도전합니다.

안소연: 작품의 배경이자 모티브로 리야드의 알-마터(Al-Mather) 주거단지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상복합 아파트와도 닮아 보이는 이 건축 구조물은 지역의 변화무쌍한 역사만이 아니라 작가의 아버지와 관련된 미시사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여러 차례 다녀오셨는데요,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는 경험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는다는 점에서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었습니다. 전작에서 출판물 자료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쿠웨이트에 오래 거주했던 영국인 바이올렛 딕슨의 수기 못지않게 이번 알-마터 거주자들과의 인터뷰도 생생한 증언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김아영: 저는 2023년 가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필름 제1회 크리티시즘 컨퍼런스(Film Criticism Conference)라는 영화제에 초대되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저희 아버지가 건설에 관여했던 다양한 건축물들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당시 주 사우디아라비아 박종용 한국 대사님의 환대를 통해, 국토부 파견 직원 등과 미팅을 갖고, 한국 건설기업들의 중동진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부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건설회사 및 저희 아버지가 재직하던 한양건설은 중동지역의 수많은 도시 인프라 시설을 건설했는데, 파워플랜트, 학교, 병원, 정부기관, 아파트 단지 등이었습니다. 그 중 사우디 국토부에서 발주하고 한양건설에서 80년대 중후반 완공한 알 마터 아파트 단지(Al-Mather Housing Complex)는, 완공 후 빈 채로 있다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사우디로 탈출한 쿠웨이트 피난민들의 생활 공간이 되었던

or to their tenant farmers, and this was a word used for real estate allocation and surveying. Later, it also meant diagrams, maps, geometric plans, and classification charts.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word entered the theatre and came to mean “practical geometry” on the stage, and a kind of “dynamic geometry of activity” in which the playwright lays out all the elements of the play, including characters, objects, stage settings, and movements and changes between the scenes. In addition,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word finally came to include the meanings of “conspiracy” and “strategy.” It is said that around the mid-17th century “plot” began to mean the sequence of events in narratives, plays, and novels.

As a maker of narratives and stories, I have been fascinated by the ambiguous meaning of “plot.” The word originally meant dividing space, and it was relatively recently that it came to mean a narrative structure, and even a conspiracy or operation.

Records of bitumen and petroleum in the Bible and *The Epic of Gilgamesh* before the Common Era; petroleum being rediscovered as an energy source in the 20th century; the oil shocks of 1973 and 1979; the migration of Korean construction workers to the Middle East; the Al-Mather Housing Complex in Saudi Arabia built by a Korean company in the 1980s; the coincidental outbreak of the Gulf War in 1990; the Gulf War being the first to be broadcast live under the name of “Operation Desert Storm,” ushering in the era of the so-called Theater of Operations; Kuwaiti refugees pouring into the Al-Mather to escape the Gulf War in 1990; memories surrounding the Al-Mather Housing Complex built by Hanyang Corporation. Floor plans of the Al-Mather and operational maps of the Gulf War unfold as well. A variety of memories and time periods intersect in this project, challenging the multilayered concept of the plot.

Soyeon Ahn: The work is set in the Al-Mather Housing Complex in Riyadh, which is also the motif for the project. The Al-Mather’s architectural structure, which looks similar to Korea’s apartment complexes, is related not only to the Middle East’s ever-changing history but also to the microhistory your father directly experienced in the region. You visited the site several times and interviewed locals,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in your project as they deliver the voices of those with lived experiences. Previously you’d utilize published materials, but interviews with Al-Mather residents serve as vivid testimonies, like the memoirs of Violet Dickson, the English writer who lived in Kuwait for a long time.

Ayoung Kim: I visited Saudi Arabia for the first time in the fall of 2023, when I was invited to the 1st Film Criticism Conference (FCC) film festival held in Riyadh. With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한양 아파트라 불리고 있고, 쿠웨이트인들에게는 쿠웨이트 아파트(Kuwaiti Compound 또는 Askaan Kuwaiti)라 불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택시 기사들이나 배달 기사들은 쿠웨이트 아파트라고 지칭해야만 이곳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많은 거시사와 미시사가 교차하고, 만남과 기억이 매개되는 장소라고 생각해 몹시 흥미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이 아파트 건설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아버지가 재직하셨던 한양아파트가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0월, 알 마터 아파트 주민 촬영을 위해 두 번째로 리야드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오래 같이 일해 온 영상 PD의 국제적 인맥을 총 동원하여 무척 어렵게 거주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알 마터 아파트는 당시 사우디에서 드물게 PC공법 또는 프리캐스트(pre-case concrete) 공법을 적용한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총 10개 동이 넘는 거대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내부에는 모스크 두 채, 병원과 치과시설, 수많은 상점이 있는 자급적 단지입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거주자의 국적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사우디인, 시리아인, 레바논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듣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 또한 각각각색입니다. 시리아 출신 거주민은, “우리는 시리아에서 처참한 전쟁을 너무도 많이 겪었기에, 사우디에서 경험한 걸프전의 폭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웃으며 회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우디인은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작 기간이 짧은 편이라 실제 당시 알 마터 아파트에 살았던 쿠웨이트인을 찾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작품이 지속된다면 꼭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프로젝트 리서치 과정 중에 반드시 인터뷰를 동반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세계에 대해 접경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라서, 인터뷰를 정말 좋아합니다. 알 마터 아파트에서는 총 네 분의 주민을 그리고 상점 직원 한 명을 인터뷰했어요.

주민은 시리아에서 이주한 가족의 아버지, 그 딸, 그리고 사우디인 여성과 그 딸, 이렇게 네 명이었고, 상점 직원은 옷 수선가게에서 일하는 인도인 이주자였습니다.

안소연: 석유의 기원과 자본화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지속적인 것이어서 작업 전반에 투영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주제를 주목하는 이유와 다양한 의제들과 결합해서 다루었던 전작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김아영: 근대를 매개한 다양한 관념과 물질, 기술들 중 석유라는 물질이 포함될 텐데, 고대로부터 엄연히 존재해 왔으나 오직 근대에 이르러 에너지원으로 재발견되면서 폭발적으로 근대의 저류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많은 이들이 화석연료의 종말을 예견해 왔지만, 여전히 견재하며 많은 반목과 갈등, 끊이지 않는 분쟁의 불씨가

a local guide, I visited the buildings that my father was involved in constructing. Also, thanks to the then-Korean ambassador to Saudi Arabia, Joon-yong Park, I had a meeting with the dispatched staff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o helped me access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dvancement into the Middle East.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my father's employer Hanyang Corporation, constructed numerous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power plants, schools, hospitals, government buildings, and apartment complexes. The Al-Mather Housing Complex, commissioned by the Saudi government and constructed by Hanyang Corporation in the mid-to-late 1980s, was left vacant after its completion until it was open to Kuwaiti refugees who escaped to Saudi Arabia when Iraq invaded Kuwait during the 1991 Gulf War. Because of this history, the Al-Mather is still called “Hanyang Apartment” among Koreans living there, and “Kuwaiti Compound” or “Askaan Kuwaiti” among Kuwaitis. Taxi drivers and delivery men also refer to this place as the “Kuwaiti Compound.” I found the Al-Mather intriguing, thinking of it as a place where countless macro and micro histories intersect and where encounters and memories are mediated. (My father was not directly involved in building the Al-Mather Housing Complex, but the company he worked for, Hanyang Corporation, constructed it.)

In October 2024, I had my second visit to Riyadh, to film the Al-Mather's residents. I had a very difficult time contacting them. The video producer who has worked with me for a long time mobilized all of her international connections to help find and contact some of the residents.

The Al-Mather was a new type of construction that used the precast concrete method, which was rare in Saudi Arabia at the time. It's a huge housing complex with over 10 buildings, and inside there are two mosques, a hospital, a dental clinic, and numerous stores, making it a self-sufficient complex. The residents have great pride in it. The interior is decorated in various styles reflecting the diversity of the residents' nationality and cultures. I was very interested to hear about how diverse people—Saudis, Syrians, and Lebanese—settled there. Their memories of the war are also diverse. A Syrian resident recalled with a smile, “We had experienced so many terrible wars in Syria that the bombings in Saudi Arabia during the Gulf War were nothing.” Another Saudi said that it was frightening. If I have to say one regret though, the production period tended to be short, so I didn't have a chance to meet any Kuwaitis who lived in the Al-Mather during its early days. If the project continues in the future, I would love to meet them and hear their stories.

I always conduct interviews during my project research. I really enjoy interviews because they are the

되고 있으니까요. 고대에 주술적이거나 실용적인 목적, 치료 또는 노아의 방주를 포함한 선박의 방수재 등으로 쓰이다가 갑자기 에너지원이 되더니, 비닐,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수많은 약품을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한 물질이 되었고, 이것이 없이 세계는 지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들여다보고 싶었던 이유는, 석유파동은 한국 경제를 강타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건설기업들이 중동에 오일 머니를 확보하기 위해 대거 파견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시성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 석유 자본을 벌어들이기 위해 중동에 파견되었던 건설회사 엔지니어였다는 점은 이 거대한 이슈를 아주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으로 변모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휴가 나올 때마다 온 가족이 김포공항으로 마중 나갔던 기억, 휴가 때마다 사오신 말린 대추야자, 중동 사막과 낙타의 풍경이 담긴 그림엽서 같은 것들이예요. 또 어린 시절 저희 학급에 있는 많은 친구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성인 남성이 한둘씩은 꼭 있을 정도로 중동 파견은 흔한 일이었어요.

한편, 이란 태생의 레자 네가레스타니와 같은 철학자이자 저술가는, “사이클로노피디아”와 같은 사변소설/철학서에서, 중동의 지표면 아래 어두운 공간을 흘러 다니는 검은 액체 석유를 살아 있는 주체, 고대의 저주를 매개하는 괴물적인 존재, 지구행성정치를 지배하는 존재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의 가공할 만한 사변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소연: 영상에서 현지인들의 삶이 투영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발견하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텅 빈 공간으로 제시된 건축 구조물과 그 공간을 유영하는 시점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은 또다른 큰 몰입감을 줍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불분명한 시간대로 인도되는 듯한 이 공간 경험은 전작들에서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통과했던 구멍이나 통로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김아영: 네, 기억의 불완전한 틈새를 유영하는 방식, 기억이 픽션화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서치와 역사적 기록, 공적 기록을 중시하던 초기 작업에서부터 언젠가부터 자료로부터의 미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더 멀리 나아간 픽션 만들거만인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와 기억은 모두에게 불완전한 것이기에, 리서치 자료를 원재료로 삼되, 이것을 마법 수프를 끓이듯 마구 뒤섞어 결과물을 만들어내 보자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억이 불완전하듯, 아카이브 사료를 또한 저마다 존재의 조각들을 담고 있으나 그것을 이어 붙여 구축해 내는 방식은 불완전성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든 기억은 소환의 노동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미 자체적으로 픽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과장일까요. 제 모든 작업은 픽션 만들기 그 자체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소연: 이러한 상상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most powerful and reliable way to approach a world I don't know much about. From the Al-Mather, I interviewed four residents and one store employee: the father of a family that had immigrated from Syria, his daughter, a Saudi woman, and her daughter. And the store employee was an Indian immigrant working in a clothing repair shop.

Soyeon Ahn: Your interest in the origin and capitalization of oil is a constant one, and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reflected in all of your works. Can you briefly tell us why you focus on this issue and how it was addressed in your previous works in combination with other agendas?

Ayoung Kim: Oil would be counted as one of the ideas, materials, and technologies that mediated modernity. I find it bizarre that while oil had existed since ancient times, it was rediscovered as an energy source only in the modern era and became an explosive undercurrent of modernity. For decades people have predicted the end of fossil fuels, but they are still alive and well, and they are the cause of many conflicts, strife, and endless disputes. In ancient times, oil was used for magical or practical purposes, for healing, or as a waterproofing material for ships including Noah's Ark. But then it suddenly became an energy source and became a versatile material used for making vinyl, epoxy, polyester, plastic, and numerous other materials. It is as if without it, the world could not survive. The reason I wanted to look into this issue was because the oil crisis hit the Korean economy hard, and so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ere dispatched to the Middle East in large numbers to secure oil money. More importantly, the fact that my father was an architectural engineer dispatched to the Middle East to earn that very oil capital turns such a huge macroscopic issue into a very personal and microscopic one. For example, I still remember my family going to Gimpo Airport to greet my father every time he came home on vacation, and the dried dates and the postcards with pictures of desert and camels that he would bring. Many of my classmates and relatives in my childhood had one or two adult males in their family dispatched to the Middle East. It was such a common thing.

Meanwhile, I'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incredible speculations of the Iranian-born philosopher and writer Reza Negarestani. In his speculative fiction/philosophy book *Cyclonopedia*, he defines the black liquid flowing through the dark spaces beneath the surface of the Middle East as a living entity, a monstrous mediator of an ancient curse, and a dominator of planetary politics.

Soyeon Ahn: The video is impressive in that it captures the Al-Mather's interiors that reflect the residents' daily

김아영: 저는 늘 전통적 광학적 이미지/미디어(optical image/media)와 탈광학적 이미지(post-optical image/media)를 두루 활용하고, 본질적으로 상이한 성향을 지닌 영상 푸티지들을 이어 붙이고, 몽타주하고, 과감히 충돌시키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그것은 제가 지속해 온 합성적 이야기 만들기(synthetic storytelling)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다양한 리소스와 자료를 모아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이미 합성적이며, 이를 구축하는 이미지 제작에 있어서도 그러한 합성성을 매우 즐겨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 제작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병치하고 충돌시켰습니다. 실사촬영(live-action shooting), 생성형 AI V2V 영상변환(Video-to-Video 변환), 라이다 스캔(LiDAR scanning), 3D 가우시안 스플래팅(3D Gaussian splatting), 게임 엔진 애니메이션, 2D 아카이브 애니메이션 등, 전통적 광학적 이미지와 탈광학적 이미지를 중첩무진합니다. 특히, 다양한 공적, 사적 이미지 기록물 이미지들을 2D 애니메이션화하여 구현했습니다. 이베이를 통해 구입한 1991년 당시 걸프전 관련 신문, 군사적 자료들, 한국 국가기록원 및 다양한 건설회사로부터 협조 받은 80년대 중동 건설현장 및 건축물 모습들, 저희 가족의 사진 자료들 등이 영상화되어 등장합니다.

안소연: 전시는 영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청각적 구성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감각적인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전시를 구성하는 작업 요소들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김아영: 전시의 중심이 되는 영상 “알 마터 플롯 1991”은 다층적 설치로 기능합니다.

전시 공간 바닥에는, 추상화된 알 마터 아파트 한 가구의 도면(plot)이 약간의 입체감을 지닌 채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텅스텐 전구 조명이 각기 다른 높낮이로 여러 개 드리워져 있어요.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90년대에는 흔했던 따뜻한 빛의 텅스텐 조명은 마치 아파트 내부(방, 주방, 거실 등)를 밝히는 조명 같기도 하지만, 또한 영상을 보고 나면 전쟁시 군사시설의 임시 조명도 연상될 것 같습니다. 이 조명 설치는 영상과 연동되는데요, “알 마터 플롯 1991” 영상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시퀀스에서 조명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떨리기도 하고,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깜빡거리기도(flickering) 하는 등, 영상 속 픽션과 기억의 세계를 물리적 세계로 꺼내 옵니다.

또한, 도면 위 조명 사이사이에 매달린 여러가지 도형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실제 전쟁에서 작전 지도를 만들 때 쓰는 기호입니다. 탱크, 발목 지뢰, 모르타르, 대대 구호소, 지항성 지뢰 등 섬뜩하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한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기호들입니다. 이러한 기호들이 알 마터 아파트의 도면 위에 매달려 녹아내리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의를 분리해 두었기에 언뜻 조형적 형태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지만, 흘러내리는 형태에서 어딘가 섬뜩한 뉘앙스를 담지하기를 원했습니다.

lives, but the way the video presents the architectural structure as an empty space and the movement of the point of view floating through that space provides a great sense of immersion. It feels like being directed to an unclear time zone. May we compare it to the holes and passages that took us to imaginary spaces in your previous works?

Ayoun Kim: Yes, you can understand it as a way of navigating through the incomplete gaps of memory, as a way memory is fictionalized. While my practice has always emphasized research, historical records, and public records, at some point I began to try to secure aesthetic autonomy from the materials and eventually learned that further fiction-making can solve that problem. Nevertheless, history and memory are incomplete for everyone. I've thus decided to use research materials as raw materials and to mix them up like a magic soup to get results. Just as memories are imperfect, archive materials are fragments of existence. By piecing them together, one can reveal the cracks of imperfection. Since all memories involve the labor of conjuring, would i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y already have fictional characters in them? All of my works are also about making fiction itself.

Soyeon Ahn: A variety of visual technologies must have been employed to create such imaginary images. What kinds of technologies did you use and how did you use them?

Ayoun Kim: I very much enjoy working with traditional optical image/media and post-optical image/media, splicing, montaging, and colliding video footages having fundamentally different tendencies. This is in line with my constant use of synthetic storytelling. Putting together different resources and materials to create a story is already synthetic, and I enjoy using the synthetic method when making images as well.

My production team enthusiastically utilized, juxtaposed, and collided various image-making methods such as live-action shooting, generative AI V2V (Video-to-Video) conversion, LiDAR scanning, 3D Gaussian splatting, game engine animation, and 2D archive animation. As such we used diverse traditional optical and post-optical media. Notably, we converted various public and private image documents into 2D animations. The animated images include newspapers and military materials related to the 1991 Gulf War purchased on eBay, images of Middle Eastern construction sites and buildings in the 1980s I obtained with the help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photographs of my family.

Soyeon Ahn: The exhibition is comprised of a video work in the center and various audiovisual components

organically connected, allowing for synesthetic experiences. Please tell us about those components that make up the exhibition.

Ayoun Kim: The central piece of the exhibition, the video titled *Al-Mather Plot 1991*, functions as a multi-layered installation. On the floor unfolds an abstract floor plan (plot) of an Al-Mather Apartment Complex drawn up with a slight three-dimensional effect. Above it, tungsten light bulbs are hanging at different lengths.

The warm-colored tungsten lights, which are rarely used now but were common in the 1990s, may recall the illuminations used for residential interiors (rooms, kitchens, parlors, etc.). But after watching the video, you may also be reminded of temporary lighting used in military facilities during wartime. This lighting installation is linked to the *Al-Mather Plot 1991* video installation. So in synch with the video, the lights tremble, brighten, darken, and flicker, bringing fiction and memory out into the physical world.

In addition, the various geometric signs hanging among the tungsten lights are actual symbols used for making operational maps in wars. Thus horrifying and practical, they signify Tank, Bouncing Betty Mine, Mortar, Battalion Aid Station, Fougasse (buried explosive charge), and so on. In flowing shapes, the signs hang over the Al-Mather floor plan. Separated from their meanings, the signs are just forms at first glance, but I wanted the flowing forms to exude an eerie nuance.

Translation: Soojin Lee & Maud Lavin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리아드 주택단지 건축 공사, 시공 BS한양,
사진 제공: 국가기록원

Riyadh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Constructed by BS
Hanyang Corporation Ltd.,
Archival image provid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1970-80년대에 10년간 중동에서 건설 엔지니어로 파견 근무한 김아영의 아버지, 작가 소장

A photograph of the artist's father, an architectural engineer who worked in the Middle East for 10 years in the 1970s-80s, Collection of the artist



1970-80년대에 10년간 중동에서 건설 엔지니어로 파견 근무한 김아영의 아버지의 동료 분들, 작가 소장

A photograph of the colleagues of the artist's father, who worked in the Middle East for 10 years in the 1970s-80s, Collection of the artist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피터 드용 (1991), 쿠웨이트 부르간
유정, 4월 22일 [레이저 사진], AP 리프
데스크, 작가 소장

Dejong, P. (1991), *Greater Burgan
Oil Field, Kuwait, April 22* [Laser
photograph], AP Leaf Desk,
Collection of the artist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FOURTEEN
 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 CRUDE OIL PRICES PER BARREL

KW DISPATCHED
 TO KUWAIT
 2ND OIL SHOCK
 101.43

IRAQ INVADES KUWAIT
 63.18

POHANG
 OIL INCIDENT,
 SOUTH KOREA
 49.93

50.94

1ST GULF V
 34.21

53.47

البنك السعودي للتأمين والتأمينات
 THE SAUDI NATIONAL INSURANCE COMPANY





알 마터 아파트 주민 알리아 모하메드 히삼 카바니와의 인터뷰, 2025

Interview with Alyaa Mohammed Hisham Kabbani, a resident of Al-Mather Housing Complex,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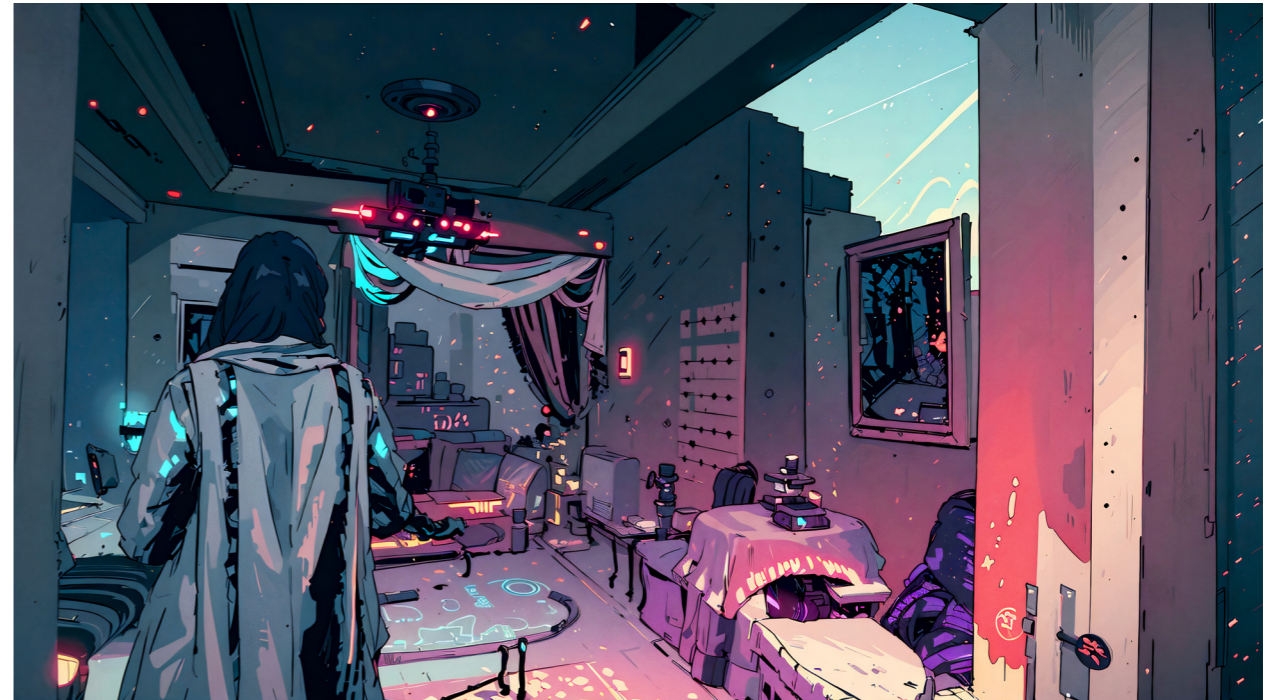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알 마터 아파트 주민 모하마드 탈랄 이즈 엘-딘 쇼노와의 인터뷰, 2025

Interview with Mr. Mohamad Talal Ezz El-Din Shono, a resident of Al-Mather Housing Complex,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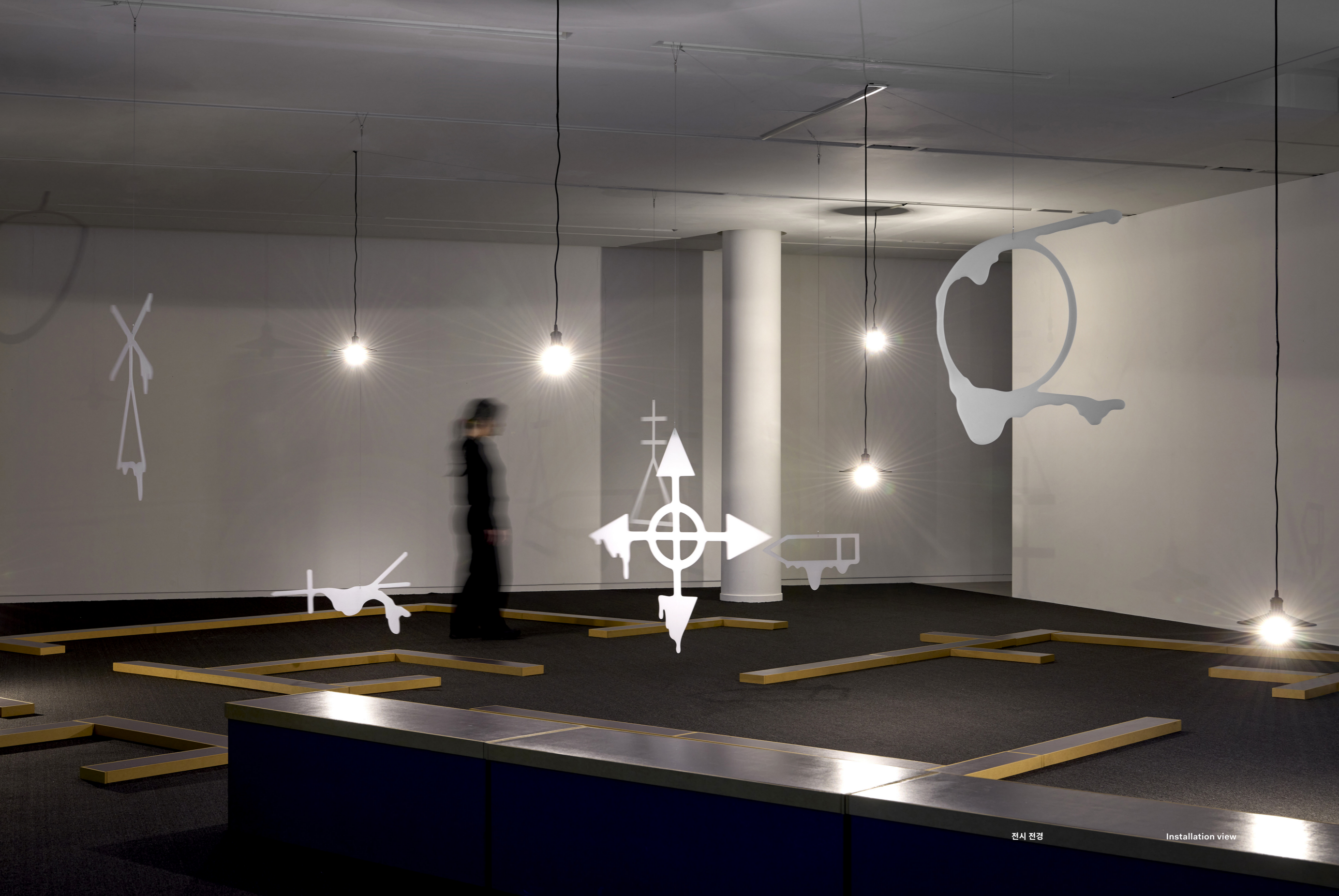


스틸 이미지

Still image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김아영 (1979년생)
2010	철시 예술대학 순수미술학과 석사
2007	런던 커뮤니케이션 대학 사진학과 학사 (논문부문 1st Class)
2002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학사

	주요 개인전
2025	개인전, MoMA PS1, 뉴욕, 미국 [예정] M+ 파사드, 파워하우스 커미션, M+, 홍콩 [예정] “Many Worlds Over”, 함부르거 반호프, 베를린, 독일
2024	“ACC 미래상 김아영—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딜리버리 댄서의 선: 0°의 리시버”, 호주국립영상박물관, 멜버른, 호주 “문법과 마법”,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다공성 계곡”,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22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멜버른 페스티벌” 일환), 내셔널 허바리움, 로얄 보태닉 가든스 빅토리아, 멜버른, 호주
2018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멜버른 페스티벌” 일환), 내셔널 허바리움, 로얄 보태닉 가든스 빅토리아, 멜버른, 호주
2017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팔레도도코, 파리, 프랑스
2016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팔레도도코, 파리, 프랑스

	주요 단체전 및 스크리닝
2025	“MACHINE LOVE: Video Game, AI and Contemporary Art”, 모리미술관, 도쿄, 일본
2024	“아트 플레이 게임즈”, 팩트, 리버풀, 영국 “예측 (불)가능한 세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한국 “모던 먼데이즈: 김아영과의 저녁”,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솔로 스크리닝) “김아영: 사변과 이야기들”, M+ 미술관, 홍콩 (솔로 스크리닝)
2023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린츠, 오스트리아 (전시 및 스크리닝) “집단지 세계짓기—메타버스 속 예술”, 하우스 오브 일렉트로닉 아트 바젤, 바젤, 스위스 20th CPH:DOX 코펜하겐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코펜하겐, 덴마크 (솔로 스크리닝) 샤르자 비엔날레 15 “Thinking Historically in the Present”,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제52회 IFFR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로테르담, 네덜란드 (스크리닝)
2021	“PHANTASMALPOLIS 未至之城”, 아시안아트 비엔날레, 타이충, 대만 “사물에서 우주로”, 가우송 시립미술관, 가우송, 대만
2020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부산비엔날레, 부산, 한국 “포럼 익스팬디드”, 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린, 독일
2019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18	“상상된 경계들 / Imagined Borders”, 12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한국
2016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난파의 소문” 일환), 팔레 가르니에 국립 오페라극장, 파리, 프랑스
2015	“모든 세계의 미래”,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주요 수상 이력
2025	LG 구겐하임 어워드,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미국
2024	ACC 미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2023	테라야마 슈지상, 제37회 이미지 포럼 페스티벌, 일본 골든 니카상,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오스트리아 (뉴 애플리케이션 아트 섹션)
2021	베를린 Sci-fi 영화제, 베스트 익스페리멘탈 부문 파이널리스트, 독일
2019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15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Ayoung Kim (b. 1979)
2010	M.A. Fine Art, Chelsea College of Arts
2007	B.A. Photography,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1st Class in Dissertation)
2002	B.A. Visual Communicat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Selected Solo Shows
2025	Solo Show, MoMA PS1, New York, US [Forthcoming] M+ Facade and Powerhouse Commission, M+, Hong Kong [Forthcoming]
2024	“Many Worlds Over”, Hamburger Bahnhof, Berlin, Germany “ACC Future Prize: Ayoung Kim—Delivery Dancer’s Arc: Inverse”,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Delivery Dancer’s Arc: 0° Receiver”, ACMI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 Melbourne, Australia
2022	“Syntax and Sorcery”, Gallery Hyundai, Seoul, Korea
2018	“Porosity Valley”,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7	“Porosity Valley”, Portable Holes (as a part of Melbourne Festival), National Herbarium at Royal Botanic Gardens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2016	“In This Vessel We Shall Be Kept”, Palais de Tokyo, Paris, France

	Selected Group Shows/Events/Screenings
2025	“MACHINE LOVE: Video Game, AI and Contemporary Art”, Mori Museum of Art, Tokyo, Japan “Art Plays Games”, FACT, Liverpool, UK
2024	“What an Artificial World”, MMCA Cheongju, Cheongju, Korea “Modern Mondays: An Evening with Ayoung Kim”, MoMA, New York, US (Solo screening) “Ayoung Kim: Speculations and Tales”, M+, Hong Kong (Solo screening)
2023	“Ars Electronica Festival”, Linz, Austria (Exhibition and screening) “Collective Worldbuilding—Art in the Metaverse”, HEK (House of Electronic Arts Basel), Basel, Switzerland 20th CPH:DOX Copenhagen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openhagen, Denmark (Solo Screening) “Thinking Historically in the Present”, Sharjah Biennial 15, Sharjah, UAE 52nd IFFR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The Netherlands (Screening)
2023	52nd IFFR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The Netherlands (Screening)
2021	“PHANTASMALPOLIS”, Asian Art Biennale, Taichung, Taiwan “From Object to Cosmos”, Kaohsiung Museum of Fine Arts, Kaohsiung, Taiwan
2020	“Words at an Exhibition—an exhibition in ten chapters and five poems”, Busan Biennale, Busan, Korea “Forum Expanded”, 70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rlin, Germany
2019	“Korea Artists Prize”, MMCA, Seoul, Korea
2018	“Imagined Borders”, 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2016	“La rumeur des naufrages” (Group performance event), Palais Garnier, Paris, France
2015	“All the World’s Futures”, La Biennale di Venezia: 5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Venice, Italy

	Selected Awards
2025	LG Guggenheim Award, Guggenheim New York, US
2024	ACC Future Prize,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23	Terayama Shuji Prize, 37th Image Forum Festival, Japan Golden Nica Award, Prix Ars Electronica, Linz, Austria (New Animation Art Section)
2021	Finalist, Best Experimental Film, Berlin Sci-fi Filmfest, Germany
2019	Korea Artist Prize Supported Artist, MMCA, Korea
2015	Young Artist of the Year Awar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에르메스 재단

2008년에 설립된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하나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의 4가지 핵심 사명은 기술과 전문성의 전수, 새로운 예술창작 활동,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연대를 장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2016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2021년부터 로랑 페주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있으며 2023-28년 기간동안 6,1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es #에르메스재단

Organized by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ponsor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프로젝트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Anais Koenig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Managing Director: Sung Hun Han
Communication Director: In Hae Yeo
Sr. Art & Window Manager: Hyejo Yum
Communication Assistant Manager: Yeji Shin



에르메스 재단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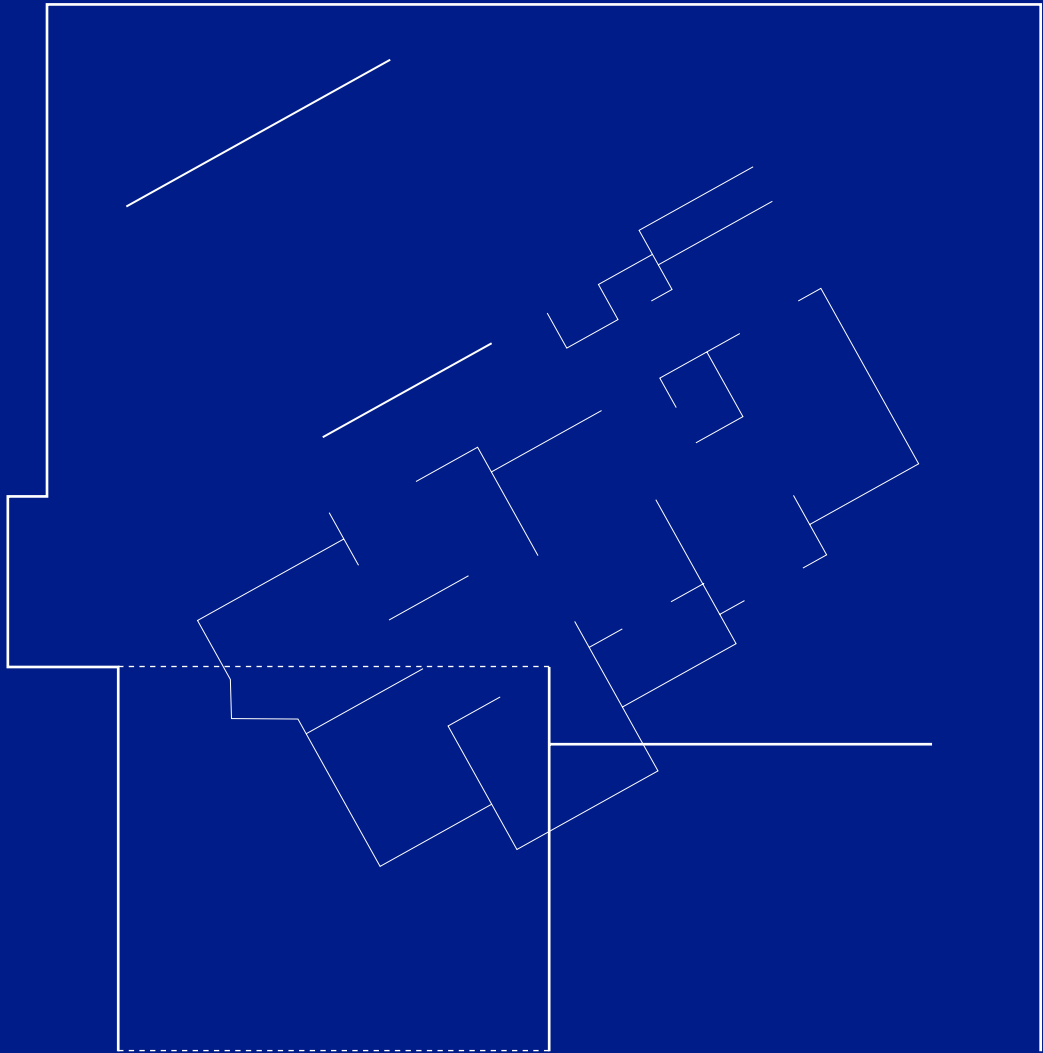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지하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 3015 3258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7시
매주 수요일 휴관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es #아틀리에에르메스

AYOUNG KIM STUDIO
Studio Managers: Yena Ku, Hyebin Kim, Soyeon Song, Chaerin Yoo, Jisu Hong



“알 마터 플롯 1991”, 2025
단체널 영상, 컬러, 사운드, 조명 연동
설치, 약 20분

Al-Mather Plot 1991, 2025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light-synced
installation, approx. 20 min.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쉘 3”(2015)의 음악 및
사운드 요소 발췌, 재사용:
김아영, 김희라 프로젝트
김아영 쓰고 만들, 김희라 작곡

Music and sound elements
repurposed from *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 3* (2015):
A Project by Ayoung Kim &
Heera Kim
Written and Directed by
Ayoung Kim
Music Composed by Heera Kim